

Approved Workmen Are Not Ashamed

# 이삭교회 어와나 클럽 이야기

어느덧 6년이란 세월이 흘렀네요. 저희 이삭교회는 2005년 5월 1일 어린이주일일 맞아 12명(영아부포함)의 어린이와 함께 교회 구성원 전체가 BT교육을 받은 후 시작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온가족예배 속에서 자녀들을 말씀으로 함께 길러가기 위한 모델로 시작되었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현재 불티단 13명, T&T 35명의 인원들로 성장하여 매 주일 성경암송과 게임으로 은혜롭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때 시작한 어린 아이들도 어느새 초등학교를 졸업한 아이도 있고 영아부에 있던 아이도 불티단과 T&T 클럽원으로 성장하여 활발히 참여하고 있습니다.

현재 주일에 온가족예배와 함께 어와나를 진행하는 관계로 온전한 프로그램진행에 어려움이 있고 교사의 부족 등의 문제를 안고 있지만 그럼에도 전체 어와나 클럽원들이 적극적으로 핸드북 암송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고학년이 멘토가 되어 저학년의 암송을 도와주는 형식으로 진행 합니다. 또 어와나 행사로는 그랑프리(격년으로 개최)도 2번 개최하여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부모님들도 참여하셔서 열화와 같은 호응도 얻었습니다.

작년(2010년) 실시된 성경퀴즈 대회에 처음 참가하여 금메달과 동시에 CHAMPION에도 뽑히는 성적을 얻어 클럽원들을 사기진작과 더불어 주님과 함께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겨울에 진행되는 미국에서 진행되는 Vision Camp와 여름에 진행되는 영어캠프에도 미국 어와나 방문 및 미국 선생님들을 이삭교회로 초청하여 클럽원들의 눈높이를 한 단계 높이는 활동도 해왔고 또한 게임즈에 매해 참가하여 전 클럽원들의 체력과 협동심이란 좋은 경험들을 하며 주님이 주신 각각의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성장해 나아가고 있는 이삭 어와나 클럽입니다.

작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적극적인 교사들의 열정과 봉사로 인해 해마다 진행되어지는 어와나 행사에 빠짐없이 참여하려 노력하고 그 경험들을 토대로 아이들을 양육하며 전도의 도구로도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믿지 않는 친구들을 주님 앞으로 전도하여 현재 높은 열정으로 클럽활동을 하고 그 클럽원이 또 다른 친구를 교회로 인도하는 놀라운 경험들도 하였습니다.

저희 이삭교회는 이름 그대로 이삭이 알곡이 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길 기다리고 순종하며 각각의 활동 속에 어와나라는 훌륭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앞만 보지 않고 옆도 돌아보며 성장해 나아가는 교회활동의 모범사례고 믿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하여 양적인 성장보다 질적인 성장을 추구하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믿음과 말씀과 기도로 양육되어지는 이삭 어와나 클럽이 될 것을 확신하며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